

■ 권중달교수의 역사칼럼<13>

불이유씨이념(不以劉氏爲念)



유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역사적 평가! 예전 사람들은 역사가의 평가를 무척 두려워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포폄(褒貶)이라는 말을 지어냈다. 과거 사람의 행적을 보고 잘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포(褒, 포상)이고, 잘 못했다고 꾸짖는 것이 폄(貶, 폄하)이다. 그리고 역사책에 한마디 칭찬을 받는 이는 입금이 입는 곤룡포(袞龍袍)를 입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한마디 폄론을 받게 된다면 마치 부월(斧鉞, 사형용 도끼)을 목에 대 것처럼 두렵다는 말까지 있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 대체로 자기정파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역사를 가져다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역사왜곡이라고 보면 된다. 역사의 평가는 그 사건의 이해당사자가 다 죽었을 때 역사가가 객관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권력을 쥐고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왜곡한 만큼 또 양갈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송 때에 제4대 인종(仁宗)은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인 진종(眞宗)은 후궁 가운데 유씨(劉氏, 劉娥)를 몹시 아꼈다. 그런데 그다지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니라고 태후가 황후로 세우기를 반대하고 있었다. 만약에 유씨가 아들이라도 낳는다면 그 공로로 황후로 세울 수가 있었지만 유씨에게서는 아들도 잉태되지 않았다.

이때에 유씨에게는 그녀를 모시고 있는 이씨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유씨는 그녀를 황제 진종에게 보냈다. 다행스럽게 아들을 잉태하였고 낳았다. 이때에 진종과 유씨는 이씨가 낳은 아들을 유씨가 낳은 것처럼 하였다. 차복생자(借腹生子)한 것이다. 그것을 기화로 태후도 유씨를 황후로 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 유씨는 이씨 덕을 토틈분 본 것이다. 물론 이씨도 이제 하급이지만 후궁의 반열에 오르게 한 것만으로 보상을 끝냈다. 이러한 사실이야 궁중에서도 쉬쉬하는 것이고 후에 인종이 되는 간난이이는 당연히 뿔났다. 그저 유황후가 자기의 친모인줄만 알고 자랐다.

그 후 진종이 죽고 차복생자가 된 인종이 황제에 올랐다. 진종의 황후 유씨는 황태후가 되어 수렴정정까지 하고 있었으나 인종의 생모 이씨는 그저 진종의 신비(眞妃)로 살아 갈 뿐 그 비밀을 발설할 염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죽었다. 장사를 지내야 했다. 황태후가 된 유씨는 적당히 장사를 지내려고 하였다. 일반 후궁이 죽었을 때처럼 적당히 염습하여 궁궐 뒷구멍으로 내 보내려고 하였다.

이때에 재상은 여이간(呂夷簡)이었다. 수렴정정하는 황태후 유씨를 만나서 “궁빈(宮嬪)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던지시 말을 꺼냈다. 황태후는 재상이 궁궐에서 일어난 일에 참견하려는 것에 화를 냈다. 뿐만 아니었다. 현재의 황제인 인종과 자기 황태후를 이간질하려는 것이냐고 까지 비약하며 재상 여이간을 몰아 붙였다. 여기까지 들은 재상 여이간은 황태후에게 한 마디 한다. “태후께서 유씨(劉氏)를 염두(念頭)에 두지 않는다면 신은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유씨를 염두에 두신다면 상례는 의당 후하게 치러야 합니다.” 이 말은 황태후가 죽은 다음에 인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된 뒤에 후 인종이 자기의 생모가 신비이씨인데 죽은 다음에 소홀하게 장례 치른 것이 백일하게 드러나게 되면 황태후의 친정 가족인 유씨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이었다.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든 황태후 유씨는 바로 “신비는 마땅히 황후(皇后)의 복장으로 염습(斂襲)하고 수은(水銀)을 관에 채우라.”라고 명령하였다. 그 후에도 상여를 담장을 헐고 나가게 하려는 것을 반대하여 승화문으로 정정당당하게 나가게 하는 등 여이간이 고집하여 인종의 생모 이씨를 황후의 예법으로 장사를 지냈다.

그 후 세월이 흘러서 황태후 유씨도 죽었다. 살아 있을 때에야 수렴정정을 하여 나는 세도 떨어트릴 권세를 가졌지만 죽고 나니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입장이 된 것이다. 인종도 친히 정사를 하게 되어 그야말로 대권을 쥐었다. 그러자 궁중에서는 황제인 인종의 생모가 이씨라는 것과 황태후였던 유씨는 차복생자하였다는 사실을 황제 인종에게 고해 바쳤다.

황제 인종은 즉시 통곡을 하고 실상을 조사하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 생모를 추존하여 황태후로 올렸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황태후에 걸맞은 장례를 치러야 했기에 인종의 생모인 황태후 이씨의 동생을 파견하여 개장하는 모습을 살펴 피게 하였다. 그리고 황후의 예복을 입고 살아 있는 것 같은 용모로 장사지내졌던 것을 발견하였다. 물론 인종은 유씨(劉氏)에게 더욱 후하게 하였다.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소용돌이가 벌어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조치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장의 살아있는 권력인 황태후의 노여움을 무릅쓰고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비극을 미리 보고 막은 것이다. 이 역사를 보면서 여이간 같은 미래를 보는 역사적 안목을 가진 재상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당장 한두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역사 안목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비극이 그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만 든다.

추밀공파 정헌공 추향제 봉행

정헌공 추향제가 경기도 양주 대사헌 종중(이사장 권호균) 재실(현 석재玄石齋)에서 전국 각지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권준식 회장은 돼지열병으로 산소에 직접 못 찾아가서 죄송하고 멀리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하며 엄숙한 마음으로 제례를 올리자고 부탁했다.

권익원 사무처장은 돼지열병으로 인해 부득이 묘소가 아닌 회관으로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족친들의 양해를 구했다. 추향제는 먼저 정헌공(正獻公)에 대한 향사를 지내고 이어서 밀직공(密

直公), 부윤공(府尹公), 집의공(執義公), 좌윤공(左尹公),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헌공 제례는 초헌관은 권호영(權鎬英), 아헌관은 권효택(權孝澤), 종헌관은 권호일(權鎬一), 집례는 권동원(權東遠) 참의공중중 상무이사로 각각 분정했다. 밀직공 향사에는 초헌관에 권호익(權鎬翼), 아헌관 권오중(權五中), 종헌관은 권연주(權蓮周)로 각각 분방하였다.

부윤공 추향 분방은 초헌관 권규식(權奎植), 아헌관 권영준(權寧俊), 종헌관에는 권희량(權熙良)이

각각 담당하였다. 좌윤공은 초헌관 권영환(權寧煥), 아헌관 권용근(權龍根), 종헌관 권호준(權鎬俊)으로 각각 분방하였다.

이날 추향제에는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 권경일 추밀공파 사무처장, 권영익 목사공중중 총무, 권박원 참의공중중 이사장, 권동원 참의공중중 상무이사, 권정택 전 기로회장(능동 성역화 추진위원), 권규식 목사공중중 회장, 참의공중중 전 이사장, 권용기 대전종친회장, 권희철 전 안양종친회장, 권희량 연천종친회장 등 경향 각지에서 많은 족친들



대사헌종중 회관 현석재(玄石齋)



화산부원군 추향제

이 동참하였고, 특히 대전에서는 대령버스 1대로 참석하였다.

편집국장 권행완



정헌공 추향제 참석자들 제례



권준식 정헌공회장

정조공파종회 제15회 경로잔치 개최

정조공파종회(正朝公派宗會; 회장 권영택)는 9월 27일 오전 11시 안동시 송현동 축협하나로마트 2층 목향회의실에서 종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조공파 제15회 경로잔치”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에 앞서 행사장 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해 종물패인 예인예술단을 초청하여 북, 팽과리, 징, 장고 등으로 ‘삼마을 선생님’ ‘내 나이가 어때서’ 등 여러 곡을 연주하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권영택 회장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묘소 망배, 상음례를 하였다. 권영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로잔치로 인해 전국에서 찾아온 족친들과 오랜만에 만나 안부도 묻고 정담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지난번 학업 정조공파종회장을 비롯하여 원로회원, 권계동 대종회 고문, 권오익 대종회 사무부총장, 권숙동 안동종친회장, 권인갑 전국과종회장협의회 회장, 권기창 국립안동대 교수 부부, 권영건 부호장공파종회장, 권기호 북야공파종회장, 권오수 동정공파종회장, 권박 안동종친회 사무국장 등이다. 이날 권순복 총무부장의 사회로



지 답사를 정례화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아울러 그는 “안동권씨 대종회 권혜옥 회장이 꽃바구니를, 권숙동 안동종친회장과 권인갑 파종회장협의회 회장이 대형화환을 보내주시고 대단히 고맙다”고 말했다. 권숙동 안동종친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경로잔치에서 족친들이 단결된 모습을 보니 다른 파에서도 부러워 할 정도”라며 “오늘은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계동 대종회 고문은 축사에서 “지금은 나이가 70살이 되어도 모두들 건강관리를 잘 해서 늙은이가 아닌 젊은 장년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공장에서 같이

출고한 자동차도 기뻐하고 관리를 잘하면 수명이 오래가고 사람도 몸관리를 잘하면 오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고문은 “족친들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년에도 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축사가 끝나자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담을 나누면서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식사를 하는데 권인갑, 권기호, 권영택 등 세 회장이 돌아가면서 건배 제의를 하여 분위기를 돋우었다. 해산할 때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간고등어 1통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보도부장 권영건)

서울마포종친회 총회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9년 11월 10일(일) 오후 13시
◆장 소: 우기촌(가마솔설령탕)02-702-5047, 010-5358-2840
◆오시는길: 지하철5호선 공덕역5번 출구·지하철6호선 공덕역6번 출구
◆연 락 처: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19년 11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승구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안내 (제301차)

- ◆일 시: 2019년 11월 17일 오전 10시(매월 3주째 일요일)
◆산 행 지: 국립현충원 뒤 둘레길(완만한 평지수준)
◆집결장소: 지하철 4, 9호선 동작역 3번출구 ※ 시간 엄수 바랍니다.
◆준 비 물: 도시락, 식수, 간식, 산행시 필수장비 등 개인별 준비

회 장(권종훈): 010-4037-6656 등반대장(권오준): 010-3718-4204
사무국장(권오준): 010-3261-2570

2019년 11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종훈

광고, 독자투고, 구독신청하세요

안동권씨 종보에서는 기업광고, 단체모임 등의 광고와 독자들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광고, 독자투고, 구독신청 연락처

▶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E-mail: ankwon2695@naver.com

andongkwonmun@daum.net

◆ 종보 대금 납부 계좌번호: 033237-04-006941(국민)

안동권씨 대종회